

인사청문 정국… 14일 전재수·15일 안규백·16일 이진숙

〈해수부〉

〈국방부〉

〈교육부〉

李 정부 초대 장관 후보…해수위·국방위·교육위 등 일정 확정
민주 “내각 조속히 구성”…국힘 “도덕·정책 전문성 집중 검증”

국회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하면서 국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내각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교육위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충남대의 연구윤리위원장이 채택됐다. 이 후보자의 ‘논문 쪼개기’ 의혹 등 연구윤리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서다.

이 후보자는 지역 국립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비수도권 대학의 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로 평가된다.

지난 2020년 충남대 총장으로 임명돼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농해수위와 국방위도 각각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4일·15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 지부는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해왔다.

3선 국회의원인 전 후보자는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지역 현역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할 책임자로 꼽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경제수석실 행정관, 제2부속실장 등을 지낸 친노(친노무현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에서 15년간 활동하며 간사와 위원장을 모두 역임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구성됐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겨냥해 “범죄종합선물세트”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낙제 총리’ 김민석 총리의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의혹투성이”라며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드러난 비리·불법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겼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2 논문 가로채기, 중여세 탈루 등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종합선물세트’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 부족”이라며 “정책과 국정을 책임질 역량이 없는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달라”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웃음꽃 피는 차담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직원식당에서 식사 후 매점에서 만난 기자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노란봉투·양곡법 등 민생입법 7월 국회서 처리”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방송 3법 등 신속 처리 당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왔던 입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존하고 심지어 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했는데 ‘이런 법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 외에도 농산물가격안정법,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을 언급하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 7월 (임시) 국회 때 꼭 (처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계획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 나서겠다”며 “점점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좀 더 많이 국민에게 해택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쓸 돈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20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했

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취지를 잘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만 거치면 본회의 처리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의 상임위 통과는 당의 공식 입장과 같다. 7월 중 처리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법 등 재계 우려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며 법안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찬대 “내란법 사면 불허 ‘특별법’ 발의”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호남을 찾아 내란법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립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내란법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열거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알이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3년 연장’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이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안정적 인 지방재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전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